



# 달을 기다리는 해의 마음은

현대청운고 2-7 이유진

여느 때와 같은 여름날이었다. 유난히 긴 여름낮은 내 머릿속 갖은 상상이 피어오르게 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는 해수욕장에서 뛰노는 강아지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스크림을 손에 쥔 아이처럼 매 순간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왜였을까? 여름낮을 쉽게 놓아주지 못하는 해한테선 열은 쓸쓸함도 느껴졌다. 만약 내가 저해였다면 뜨거운 여름을 함께 보낼 친구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해가 기다리던 친구가 달이 아니었을까. 마치 만나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해는 달을 기다렸다. 달은 밤이 돼서 ‘오늘 참 재밌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물음표에 빠진다. 발이 데일 듯 뜨거운 모래와 차가운 바닷물을 오가며 물장난을 치는 기분은 어떨지. 다 녹아 손에 흐르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달은 평생 동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야속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 속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흔히 말하는 ‘공부 좀 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하는 내내 나의 모습은 중학교 시절 내가 그렸던 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내

가 세운 계획을 다 못 지킬 때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많았다. 발표도 푹 부러지게 하고 시험도 잘 쳐서 매번 장학금을 받는 주위 친구들을 보면 알밋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따라잡을 의지라도 있었다면 반복될수록 점점 나는 이루지 못할 성공이라는 생각에 휩싸였다.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다. 우리 집에서 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들었다.

평소처럼 수많은 생각들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익숙지 않은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하얀 달이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해의 옆에 하얀 달이 떠 있었다. 어찌면 달은 내가 자책에 빠져있을 동안 해를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일까. 나의 무력감에 대한 핑계가 돼주었던 하늘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해도 전과는 달랐다.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진 듯한 온전한 행복이 해와 달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달은 놀랐을 것이다. 그저 야속하기만 했던 여름밤에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도 같지 않을까. 사실 난 나도 모르는 새에 나와 약속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니 어찌면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나와 끊임없이 약속했다. 꼭 열심히 해서 서늘한 여름밤에서 벗어나, 뜨거운 행복의 여름밤으로 가자고. 좋은 성적, 좋은 교우관계, 장학금을 쫓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좋은 결과가 따라주

지 않아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나의 모습을 기다렸나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여름나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결실을 맺을 나의 노력을 누구보다 믿어주고 있던 존재는 선생님도, 가족들도 아닌 또 다른 나였다. 나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었던 하늘은 시간이 지나 굳은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

시간도, 장소도 없이 오로지 꿈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약속은 언젠가 나와 또 다른 나의 손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쥐여줄 것이다.

